

문화콘텐츠의 인정 효과 :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변화를 중심으로(1920-2017) Recognition Effect of Cultural Contents : Focusing on Changes in Perception of Sexual Minority

이혜미, 유승호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

Hye-Mi Lee(leehm0818@Kangwon.ac.kr), Seoung-Ho Ryu(shryu@Kangwon.ac.kr)

요약

본 연구는 R 3.4를 이용하여 1920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언론기사를 분석하여 약 100여 년간 언론을 통해서 재현된 성소수자 담론을 고찰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투사적 혐오’에 대항하는 ‘투쟁하는 예술’로서 영화의 역할에 주목했다. 영화 속 성소수자들은 혐오스러운 이가 아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고, 단지 성적지향이 다를 뿐이다.

일반적으로 성소수자는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미디어가 재현하는 내용을 통해 그들을 경험하고 인식하게 된다. 성소수자에 대한 미디어 재현은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문제를 표면 위로 공론화시킴으로써 우리사회의 주요 의제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디어의 재현은 주류의 시선에서 소외되고 기피대상으로 여겨지는 문제를 전면에 드러내고 부각시킴으로써 사회적 담론으로 부상하게 한다. 미디어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대상을 입체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며, 사회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는 문화콘텐츠가 시위나 항의와 같은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투사적 혐오에 대항할 수 있는 인정투쟁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중심어 : | 문화콘텐츠 | 성소수자 | 혐오 | 인정 | 인정투쟁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domestic media articles from 1920 to 2017 using R 3.4, a big data analysis tool. In addition, it examines the sexual minority discourse reproduced through the media for about 100 years, focused on the role of the film as an art of struggling with the projective aversion to sexual minorities. sexual minorities in movies are not abominable. They are people we already know in our daily lives, and they are just different in sexual orientation.

In general, sexual minorities are less likely to encounter in everyday life, so they are experienced and perceived through what the media present. It is noteworthy that the representation of sexual minorities in the media is formed as a major agenda of our society by publicizing the problems underlying society on the surface. It causes social issues to be raised by revealing and highlighting the problems that are regarded as alienated and avoided from the mainstream’s gaze. The content provided by the media enables a three-dimensional experience of subjects who have not experienced it by themselves, and has a decisive influence in correctly recognizing and judging society. Media content suggests that it can be a powerful weapon of recognition struggle that can naturally fight against social hatred without using methods such as demonstrations or protests.

■ keyword : | Cultural Contents | Sexual Minority | Disgust | Recognition | Struggling for Recognition |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3A2066149)

접수일자 : 2018년 05월 28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7월 11일

수정일자 : 2018년 06월 26일

교신저자 : 유승호, e-mail : shryu@Kangwon.ac.kr

I. 들어가며

사회적 소수자는 수에 있어서의 다소보다는 권력과 힘의 우열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적 소수자는 성, 나이, 인종, 사상, 경제력, 취향 등 지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기준이 가치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는 이들을 소수자라 칭하는데[1][2]. 그 중에서도 성소수자는 차별받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으로 꼽을 수 있다. 성소수자는 한국사회에서 학력, 가치관, 소득 등과는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차별을 겪고, 주변화된 집단으로 간주된다[1-4].

한 사회의 지배적 가치는 그 사회의 매스미디어를 통해 드러난다. 매스미디어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 합의된 해석을 내리고 그에 따라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특정한 가치를 재생산하도록 기능한다[5]. 미디어가 생산하고 재구성한 현실은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지지해야 할 이상적인 가치로 자리하고, 이를 또 다시 미디어가 재현하는 과정을 통해 한 사회의 지배가치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대중의 인식,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미디어의 재현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직접 경험할 가능성이 적은 대상인 경우,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성소수자가 등장하는 국내 매스미디어를 분석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성소수자 재현의 문제점으로 과소재현과 왜곡재현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미디어의 과소재현은 미디어에 등장하는 비율이 실제 존재하는 성소수자에 비해 적거나, 미디어 상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사회 내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의제 및 담론이 형성되기 어렵다. 거브너와 그로스(Gerbner, G. & Gross, L.)는 상징적 소멸(symbolic annihila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이를 설명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미디어에 의해 배제된 집단은 사회적으로 존재감, 중요성을 박탈당한다[6]. 미디어에 등장시키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존재를 은폐하거나, 축소시켜 그들을 주변화하고 중요하지 않은 지위로 위치시킨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 관련 연구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재현에 주목한다. 언론보도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류 언론은 성소수자들을 병리집단, 범죄 집단, 에이즈 등으로 규정했다. 언론은 동성애를 일종의 질병으로 간주하고, AIDS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AIDS 확산의 주범으로 낙인찍는 경향을 보였다[7], 또한 드라마 속 성소수자들은 비정상적이고 특이한 성적취향을 지닌 인물이거나 남성이지만 여성스러운 성향을 지닌 회화화된 캐릭터로 등장했다. 국내 주류 미디어는 성소수자들을 주로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난 주변인물로 그렸으며, 에이즈와 결부시키며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으로 재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차 미디어에 성소수자가 등장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양적 증가가 균형 있게 차별 없는 재현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으며, 여전히 기존 이성애 지배가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재현양상은 결국 성소수자들을 주변화, 타자화시키며, 인권, 차별 등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8][9].

성소수자는 성적지향에 의해 구분지어지는 개념으로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로 규정한다. 성소수자는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인 이성애와 배치됨으로써 편견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더욱 큰 문제는 HIV/AIDS 등 질병과 연결되어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강하게 형성되면서 단순한 소수집단을 넘어선 혐오의 대상으로 치부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혐오감이라는 것은 오염원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인간의 자기방어本能 중 하나이다. 누스바움(Nussbaum, M. C.)은 혐오를 원초적 혐오와 투사적 혐오로 구분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투사적 혐오라고 설명한다[10]. 원초적 혐오가 생존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투사적 혐오는 아무런 실제적 근거도 없이 오염원의 속성을 특정 대상에 투사하여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동성애자들을 보면서 HIV/에이즈 등의 질병과 연결시켜 투사적 혐오가 발현되는 것이다[11][12].

이러한 투사적 혐오는 사회적 집단 간의 갈등이 감정적으로 표출되고 것으로서, 누스바움은 그의 저서 <혐오에서 인류애로(From disgust to humanity)>를 통해

영화가 성소수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형성된 투사적 혐오와 싸워나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영화가 제공하는 강력한 이미지들은 게이도, 레즈비언도 혐오스러운 이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이미 알고 있는 인간임을, 많은 경우 그들이 이미 사랑하고 있는 존재임을 보여줌으로써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의 재현은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문제를 표면 위로 공론화시킴으로써 우리사회의 주요 의제로, 문제 의식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디어는 주류의 시선에서 소외되고 기피대상으로 여겨지는 문제를 전면에 드러내고 부각시킴으로써 저항적 사회담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 운동이 인권을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으로 관련 논의들은 국제인권체제의 성립, 그리고 미디어의 역할에 주목한다. 국내 최초의 동성애자 인권단체인 '친구사이' '끼리끼리' 등이 설립되면서 사회적 이슈로서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문제를 부각시키기 시작했고[13][14],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으로 각종 미디어에서 동성애 재현을 가시화하면서[15] 성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지난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 한국사회의 동성애 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매스미디어가 성소수자 집단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 집단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봤을 때 특정시기의 특정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있을 뿐 오랜 시간에 걸쳐 성소수자 담론을 살펴보고자 한 시도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R 3.4를 이용하여 1920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언론기사를 취합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약 100여 년간 언론을 통해서 재현된 성소수자 담론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뉴스바움의 논의를 바탕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혐오와 투쟁하는 예술로서의 영화의 역할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한국사회의 성소수자 : 국내 언론 보도 분석

매스미디어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 합의된 해석을 내리고 그에 따라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특정한 가치를 재생산하도록 기능한다[5]. 주류 미디어인 언론이 제시하는 동성애 담론을 통해 한국사회가 사회적 소수자로서 동성애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느 정도 포용하는가를 보고자 한다. 이에 네이버뉴스라이브리리를 통해 취합할 수 있는 기사들을 분석하여 192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0여 년간의 동성애 관련 기사를 살펴보았다.

표 1. 분석방법

구분	내용
분석대상	네이버뉴스 라이브리리를 통해 추출한 국내 뉴스 기사
분석시기	1920. 01 - 2017. 12
검색키워드	동성애 1 동성연애 1 게이 1 레즈비언
분석툴	R 3.4, Python 3.6

표 2. 시기별 보도 건수

시기	연도	보도건수
1	1920-1939	32
2	1940-1959	22
3	1960-1979	190
4	1980-1999	1383
5	2000-2017	2854
총	1920-2017	4481

표 3. 시기별 주요단어 분석결과

시기	연도	보도에 사용된 주요단어
1	1920-1939	자살(11), 죄수·사적·음독·정사(4), 살해·성욕(3)
2	1940-1959	영국(4), 도착증·매음·범죄·변태·폭행(3)가장·대책·문제·시체(2)
3	1960-1979	영국(47), 법안(29), 합법화(24), 문제·자유·통과(15)
4	1980-1999	영화(362), 사랑(190), 문제(139), 에이즈(119), 작품(103), 영화제(96), 운동(71)
5	2000-2017	인권(587), 차별(353), 축제(350), 권리(236), 혐오(218), 지지(193)

1. 1시기·2시기 : 비정상인, 범죄, 에이즈와의 동일시

1시기와 2시기에 보도된 기사 수는 각 32, 22건으로 1920년대부터 1960년대 이전까지의 시기에는 동성애 이슈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미디어에 등장하는 성소수자들은 실제 사회의 성소수자 비율과 비교했을 때 더 적으며, 우리사회에서 소수이자 비가시적인 존재로 규정된다. 이에 거브너와 그로스[6]는 미디어가 동성애를 재현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를 상징적 소멸이라는 개념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 주류 미디어는 아예 재현하지 않거나 축소함으로써 성적 소수 집단을 사회로부터 은폐하고 주변화 하여 상징적 소멸(symbolic annihilation)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죄수, 음독, 살해, 도착증 등의 보도에 사용된 주요 단어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을 때 성소수자들을 비정상적이고, 유해한 집단으로 낙인찍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질병, 범죄사실과의 연계, 에이즈와 결부시켜 비정상적이고 문란하다는 인식을 강화시켰으며, 이성애 규범과 배치시켜 보도함으로써 성소수자를 타자화하고, 이성애를 재생하는 기제로 활용했다.

同性愛(동성애)와異性愛(이성애)는 어느 점에서 구별되는가? ... 동성애는 여자면 여자끼리 남자면 남자끼리 서로 신상에 대한 동정 혹은 사춘기에 성적 충동으로 발생하는 연애감정이다.. - 1954.10.03. 경향신문

늘어가는同性戀愛(동성연애) 英國監獄(영국감옥)의 골머리, 영국 감옥에서는 간수들의 부족으로 감방내에서 동성성욕도착증이 증대되고 있다 1959.05.23. 동아일보

2. 3시기 : 서구의 동성애 합법화

3시기는 1960년대부터 1979년도까지로 1,2시기에 비해 보도량이 소폭 증가했다. 이 시기의 보도에서 자주 등장한 단어는 [표 3]과 같이 영국(47), 법안(29), 합법화(24), 문제·자유·통과(15)순이다. 키워드를 중점으로 해당 시기의 기사를 살펴보면, 1960년대 영국에서 동성

애를 합법화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동성애 단체의 움직임, 노르웨이 사례 등을 보도했다. 이 시기는 한국사회에서 동성애단체들의 움직임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고, 동성애이슈가 사회적 담론을 형성되기 전이다. 언론은 서구의 동성애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움직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의제를 형성하기보다는 단순히 사실 전달에 그치는 수준을 보였다.

『호모·섹스』는 犯法(법법)아니다. -1966.02.17. 동아일보

同性愛合法化(동성애합법화)승인 - 1970.06.04. 매일경제

同性愛(동성애)에自由(자유)를 葡團體(포단체) 「파시즘 犧牲 희생」, 동성애단체 자유를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다 - 1974.05.15. 매일경제

「샌프란시스코」의 동성연애자들이 지난 7월 「동성애 자유의날」 퍼레이드에서 에이즈 기금운동 벌여 - 1983.08.15. 동아일보

3. 4시기 : 미디어의 동성애 재현 가시화

4시기는 1980년대부터 1999년도까지로 1,2,3시기와 비교해볼 때 보도 빈도가 급증했다. 연도별로 구분해서 살펴볼 때 아래 [그림 1]과 같이 1995년부터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시기 보도에 사용된 주요 단어는 영화(362), 사랑(190), 문제(139), 에이즈(119), 작품(103),영화제(96),운동(71)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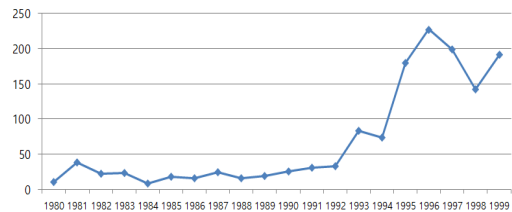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성소수자 관련 보도량 분석 결과

1990년대는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기이다[16]. 커밍아웃이 힘들었던 시기에 대학을 중심으로 연대가 형성되고 확장되면서 금기시되었던 성소수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듯 각종 미디어 상에서 동성에 재현을 가시화했다[15].

기존의 미디어 속 성소수자는 비정상인, 성적 도착, 범죄 등과 동일시되거나 희화화된 캐릭터로 주로 등장했다. 1990년 후반부터 비정상인이 아닌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닌 단지 성적지향이 다른 인물로서 그려지기 시작한다[17].

베를린 영화제, 은곰상은 자신의 억압된 동성에 성향을 인정하게 되는 청년의 이야기를 다룬 서독영화 <태뵈>가 차지했으며.... - 1990.02.22. 한겨레

인권소재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는 조나단 템감독이 연출한 동성애 소재 작품이다에이즈와 동성애를 소재로 삼은 영화 중 필라델피아는 에이즈 환자의 법률적 인권을 다뤄 눈길을 끌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의연히 투쟁하는 젊은 변호사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린다- 1994.09.02. 경향신문

邦薫(방화)에도 「동성애영화」, 패왕별희 필라델피아 등 동성애문제를 다룬 외화들이 선을 보인데 이어 국내 영화계에서도 동성애문제를 다룬 영화가 나와 영화팬들의 수용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 영화는 우리 사회에서 이단아의 취급을 받는 사람들의 세계를 조명하고 있어 주목된다... 감독은 동성애자들을 옹호하지도 매도하지도 않고 최대한 객관적 입장에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풀어보려 했다고 연출의도를 밝혔다- 1994.10.28. 동아일보

동성애 "性(성)의 또 다른 형태"인식 확산 의학계 80년대에 정신병분류에서 삭제, 정신병자 아닌 독특한 행동으로 간주 - 1996.04.07. 동아일보

목소리 높이는 동성애 모임 사회적 편견 차별 맞서

인권운동 깃발 문화제 캠프에 강의 개설도 요구키로..
- 1996.04.09. 경향신문

4. 5시기 : 성소수자 인권문제에 대한 담론 형성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예술, 문화영역의 성적지향과 관련한 활발한 움직임과 더불어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관련한 문제의식이 사회적 담론으로 형성되기 시작한다. 홍석천이 커밍아웃을 하고, 트랜스젠더 하리수가 등장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담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8][14][18]. 이러한 흐름은 이성애중심의 지배적 가치관을 통해 비정상인으로 여겨지던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을 의제화함으로써 성적지향에 대한 공론을 이끌어냈다.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여전하다... 인권침해의 주 대상이 되는 또 다른 집단은 여성 성폭력과 직장 내 성차별, 사회 진출이나 승진 기회의 제한 호주제 등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동성애자, 난민신청자, 외국인 노동자, 미혼모 등에 대한 차별과 아동학대 문제 등도 산적해 있다
- 2001.11.28. 동아일보

'동성애' 차별적 표현 사라진다. 앞으로 각종 사전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동성애자인권연대와 연세대 '킴투게더'를 비롯한 4개 대학 동성애자 모임이 국립국어연구원과 9개 출판사를 상대로 낸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수정' 진정사건을 '심의 중 해결했다고 밝혔다. - 2002.11.15. 연합뉴스

[인권]"사회는 점점 다양화하고 있다"가인권위원회는 이달초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매체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청소년보호법의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동성애를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하고, 성적 지향의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못 박은 것 성적 소수자에게 대한 차별문제는 이제 '인권문제'로 서서히 바뀌고 있는

중이다.

- 2003.04.13. 한겨레

포비아 신드롬-막연한 두려움... 현대인의 '절규'
동성애를 혐오하는 호모 포비아는 공포심보다는
극단적인 혐오감에 가깝다. 이들은 요즘 젊은 남성들이
하는 귀고리조차도 동성애의 표현이라며

비정상적인 적대감을 드러낸다. - 2006.04.22.

문화일보

브라질 상파울루 시에서 해마다 열리는 동성애 축제
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성전환자를 뜻하는 영문 첫 글자를 본떠 '상파울루
GLBT 퍼레이드'로 불리는 이 행사는 전 세계에서 찾
아온 수백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시내 중심가인 파울리
스타 대로를 가득 메운 채 대대적인 축제를 벌이는 것
으로 유명하다. 조직위 관계자는 "올해 퍼레이드의 캐
치프레이즈였던 '동성애를 범죄시하지 말라'에 이어 내
년에는 '인종차별, 남성우월, 동성애 혐오가 없는 세계'
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06.11.07. 연합뉴스

III. 혐오에서 인정으로 : 영화의 인정투쟁적 역할

성소수자에 대한 미디어의 재현은 1990년대에 본격
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매스미디어가 사회의 분위
기와 지배적 가치관의 한계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데 비해 영화는 보다 진보적으로 접근한다[19]. 특히 검
열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독립영화의 경우 성소수자
의 인권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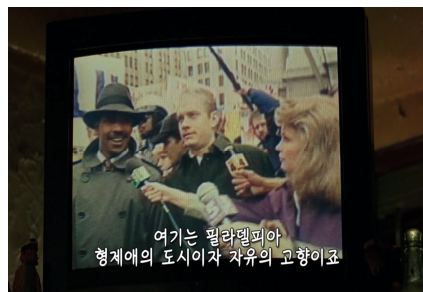
영화는 전달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제를 다양한 관점
에서 다루기보다는 하나의 주제를 감독의 관점으로 의
도 그대로 관객에게 각인시킨다[21]. 사람들이 올바르
게 사회를 인식하고 판단하는데 있어서 영화는 결정적
인 역할을 한다[22].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대상을 입체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콘텐츠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23]. 영화는 시위나 항의
와 같은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회의 편견
을 해소할 수 있는 소수자들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
다. 이는 누스바움이 그의 저서 <혐오에서 인류애로>
를 통해 제시한 영화의 기능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영화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혐오의
시선으로부터 맞서 싸운다 영화가 제공하는 강력한
이미지들은 게이도 레즈비언도 혐오스러운 이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이미 알고 있는 인간임을
많은 경우 그들이 이미 사랑하고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었다

영화 필라델피아(Philadelphia, 1993)는 당시 미국사
회의 성소수자, 그리고 에이즈에 대한 사회인식, 편견,
혐오감,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들을 적극적으로 담
아낸 영화이다. 1994년도 아카데미시상식에서 남우주
연상, 음악상을 수상했으며, 성적지향과 에이즈 환자에
대한 처우를 재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사회적으로 크게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작품이다. 동성애를 소
재로 한 영화라기보다는 성소수자와 에이즈 환자에 대
한 사회의 편견, 차별,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영화이다. 주인공 앤드류 벤키(톰 헝크스)이 자신의 성
적지향과 에이즈 감염으로 인해 부당한 해고를 당한 후
로펌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준
다.

1) 성소수자의 인권문제 쟁점화



“이곳은 형제애의 도시이자 자유의 고향이죠 건국의 아버지들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곳입니다 선언문은 “모든 이성애자들은 평등하다”라고 하지 않았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했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필라델피아’이다. 앤디의 변호인인 조의 말처럼 건국의 아버지들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자유를 선포한 곳이다. 이곳 필라델피아를 영화의 배경으로 설정한 것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자유와 정의의 도시로 상징되는 필라델피아, 이곳에서 주인공 앤드류는 성적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부당한 해고를 당하고 사회로부터 혐오 어린 시선을 받고 자유를 침해당한다. 감독은 자유와 정의의 상징인 필라델피아를 영화의 배경으로 설정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드러냄으로써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그들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현실을 시사한다.



주인공 앤드류 베켓이 근무하는 로펌은 당시 성소수자들과 에이즈 환자들이 처한 미국사회의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앤드류 베켓은 자신의 성적지향과 에이즈 감염사실을 숨긴다. 그리고 후에 그가 속한 집단이 동성애자들에 대해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됐을 때,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들켜지 않아 다행이라고 여긴다. 로펌(와이언트-휠러)에서 근무할 당시 당신이 게이라는 것을 애기한적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그는 과거 로펌의 파트너들이 성적농담을 하며 동성커플에 대해 혐오감을 드러냈던 대화를 회상한다. 그리고 대답한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게이임을 말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또한 에이즈 감염 증상 중 하나인 얼굴의 반점을 감추고자 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이마에 난 반점에 대해 묻는 로펌의 파트너에게 ‘라켓볼에 맞았다’라고 둘러대고, 반점을 가리기 위해 파운데이션으로 덧칠한다. 이는 단순히 반점을 감추기 위한 행동이 아니다. 앤드류 베켓은 자신이 에이즈 환자이고, 동성애자라는 것을 밝혔을 때 자신에게 닥칠 안 좋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화는 당시 미국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편견에 대한 실태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있다. 앤드류는 로펌을 상대로 부당한 해고에 대해 맞서고자 하지만 동성애자이며, 에이즈 환자인 앤드류의 변호를 맡아줄 대형 로펌을 상대할 변호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9명의 변호사에게 거절당하고 조 밀러(덴젤 워싱턴)를 찾아간다. 이 장면에서 조 밀러 역시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 에이즈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낸다. 앤드류의 손이 닿았던 곳곳을 째짤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의사를 찾아가 에이즈 감염 경로에 대해 확인하기도 한다.

조 밀러는 도서관에서 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앤드류를 마주한다. 그곳에서 에이즈 감염증상을 보이는 앤드류를 힐끔거리며 쳐다보고 피하는 주위 사람들, 개인연구실 이용을 권하는 도서관 사서의 행위 등 차별을 받는 상황을 목격하고 그의 변호를 맡게 된다.

영화는 이러한 씬들을 통해 성소수자들이 겪는 차별의 문제를 법적, 제도적 측면만이 아닌 개인적 수준으로 확장,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1973년 연방 직업 제한법은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판결이 에이즈에 대한 차별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이후의 판례는 에이즈도 장애로 인정했다. 육체적 제한뿐만 아니라 에이즈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죽음이 육체적 죽음을 앞서기 때문이다. 이것이 차별의 본질이다. 개인의 능력을 근거로 하지 않고 같은 특징을 가진 집단에 속했다는 것에 근거해 견해를 형성하는 것

동성애자, 그리고 에이즈 환자들은 법적으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차별어린, 혐오어린 시선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러한 영화 속 메시지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기존의 인식,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처우 등을 재고하게끔 했다.

2) 혐오에 맞선 인정투쟁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회사 측 변호사는 앤드류의 숨겨진 불편한 사생활을 들춰내며 배심원이 동성애의 혐오감을 갖도록 자극한다. 이에 조밀러는 이의를 제기하며 소리친다.



“이 법정안의 모든 이들은 성적 지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슨짓을 하는가 앤드류 베킷(주인공)을 보며 상상합니다. 재판장님조차도 말입니다. 모두 상상하고 있어요. 이 재판은 에이즈에 관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재판의 본질을 말해보면, 그건 동성애자에 대한 대중의 증오와 혐오 공포입니다.

그 혐오와 공포가 어떻게 앤드류 베킷의 해고로 이어졌는지 얘기해보자는 겁니다.”

혐오감이라는 것은 오염원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인간의 자기방어본능 중 하나이다. 누스바움은 혐오를 원초적 혐오와 투사적 혐오로 구분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투사적 혐오라고 설명한다[10]. 아무런 실제적 근거도 없이 오염원의 속성을 특정 대상에 투사하여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동성애자들을 보면서 HIV/에이즈 등의 질병과 연결시켜 투사적 혐오가 발현되는 것이다[11][12].

흔히 동성연애는 불우한 가정, 군대나 감옥 같은 폐쇄적인 곳에서의 일탈행위, 정신병, 성적 도착 등으로 치부되고 한다. 주인공 앤드류 베킷의 가정환경, 화목한 대가족의 일원으로 주인공을 설정한 것은 기존의 선입견에서 벗어나 동성애자들이 불우한 환경의 일탈로 인한 선택이 아닌 정상의 문화로 이해시키고자하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24].

은 가족이 모인 가운데 앤드류는 재판으로 인해 가족이 겪게 될 어려움을 우려한다. 앤드류의 어머니는 “나는 내 아이들을 강하게 키웠어. 너희를 버스의 뒷자리에만 앉아있으라고 가르치지 않았지. 너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거야” 라고 말한다. 가족은 정의를 위해 싸우는 주체로 앤드류의 용기 있는 행동에 동참한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 앤드류 베킷은 승소한다. 길고 고통스런 재판 과정에서 모든 이성애자의 평등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적 취향을 넘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외친다. 성적 취향으로 인한 불평등을 위해 투쟁한 것이다. 결국 배심원은 앤드류의 부당한 해고를 인정하며 회사가 막대한 보상을 할 것을 판결한다. 재판에 승리한 조는 앤드류의 병원에 최고급 샴페인 돔페리뇽을 내보이고 앤드류는 엄지손가락을 힘들게 치켜든다. 첫 아이를 낳은 아내를 위해 돔페리뇽을 살 수 없었던 조는 앤드류를 위해 아낌없이 최상급 샴페인을 준비해 가서 얼음이 담긴 아이스 버킷 안에 넣어 놓는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후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다.

영화 ‘필라델피아’는 성적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사건을 전개로 우리사회의 혐오와 투쟁하면서 인권을 위해 싸우는 과정을 그렸다. 1994년도 아카데미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 음악상을 수상했으며, 2600만 달러의 예산으로 1994년 한해에만 206,678,440달러의 수익을(약2,225억) 올렸다[25]. 당시 성소수자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정립하고, 사회적 담론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상징적인 작품이다. 필라델피아 이후 브로크백 마운틴(Brokeback Mountain, 2005), 밀크(Milk, 2008) 등의 영화는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전면화함으로써 편견과 혐오로 얼룩진 사회인식의 변화와 에이즈 환자 처우 문제에 대해 재고할 필요성을 크게 환기시켰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1920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0여 년간 국내 언론을 통해서 재현된 성소수자 담론을 고찰하고, 누스baum의 논의를 근거로, 성소수자에 대한 투사적 혐오와 투쟁하는 예술로서의 영화의 역할에 주목했다.

영화 속 성소수자들은 혐오스러운 이가 아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고, 단지 성적지향이 다를 뿐이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이미지는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적다. 미디어가 재현하는 내용을 통해 그들은 경험하고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

미디어의 재현은 기존 가치를 정당화하는 규범적 성격이 지배적이지만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문제를 표면위로 공론화시킴으로써 우리사회의 주요 의제로, 문제의식을 만들어 내고 있기도 하다. 미디어는 주류의 시선에서 소외되고 기피대상으로 여겨지는 문제를 전면에서 드러내고 부각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성소수자 관련 영화 담론의 증가가 동성애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미디어의 새로운 의제설정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디어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대상을 입체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23]. 특히

영화는 전달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기보다는 하나의 주제를 감독의 관점에서 의도 그대로 관객에게 각인시킨다[21]. 관객이 사회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는 문화콘텐츠가 시위나 항의와 같은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투사적 혐오에 대항할 수 있는 인정투쟁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 문헌

- [1] 백선기, “한국 언론의 ‘소수자·약자’ 보도 경향과 사회문화적 함축 의미,”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95-132, 2006.
- [2] 장미경, “한국사회 소수자와 시민권의 정치,” 한국사회학, Vol.39, No.6, pp.159-182, 2005.
- [3] 김상학,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Vol.5, pp.169-206, 2004.
- [4] 박수미, 정기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891-895, 2004.
- [5] J. Fiske and J. Hartley, Reading Television (London: Methuen, 1978), See also, 105. 2011.
- [6] G. Gerbner and L. Gross, “Living with television: The violence profile,” Journal of communication, Vol.26, No.2, pp.172-199, 1976.
- [7] 백선기, 텔레비전 문화의 기호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 [8] 박지훈, 이진, “성소수자에 대한 미디어의 시선,” 미디어, 젠더 & 문화, Vol.28, pp.5-42, 2013.
- [9] 이자혜, 드라마<인생은 아름다워>의 동성애 재현과 담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2, No.12, pp.555-566, 2012.
- [10] M. C. Nussbaum, (강동혁 역 2016. 혐오에서 인류애로: 성적지향과 헌법, 뿌리와이파리, 서울), From disgust to humanity: Sexual orientation and constitu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11] 가상준, “혐오집단에 대한 한국인의 정치관용 및 태도,” 동서연구, Vol.28, No.3, pp.125-148, 2016.
- [12] 이병량, “성적소수자 인권운동의 전개와 정책적 대응,”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270-283, 2010.
- [13] 강병철, 김지혜,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 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159, 2006.
- [14] 서동진, 인권, *시민권 그리고 섹슈얼리티*, 경제와 사회, pp.66-87, 2005.
- [15] 김정선, “SBS 주말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에 대한 수용자 해독 연구,” 미디어 경제와 문화, Vol.10, No.1, pp.86-123, 2012.
- [16] 이승희일, *한국 성소수자 인권의 뒷걸음질 10년*, 오늘의 문예비평, pp.98-111, 2017.
- [17] 양성희, “대중문화 속 동성에 표현의 현주소,” 관훈저널, Vol.110, pp.113-118, 2009.
- [18] 윤수중, *소수자 운동의 특성과 사회운동의 방향*, 경제와사회, pp.12-38, 2005.
- [19] 홍지아, “드라마에 나타난 낭만적 동성애의 재현과 사랑 지상주의적 서사,” 한국방송학보, Vol.22, No.1, pp.162-200, 2008.
- [20] 강소원, “퀴어로맨스: 한국독립단편영화에 나타난 동성애 재현에 관한 에세이,” 독립영화, pp.10-19, 2004.
- [21] 이선자, “영화 속의 장애인 이미지 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 pp.77-111, 2007.
- [22] 박민수, “감성과 인문교육 그리고 세계시민주의 -마사 누스바움에 관하여,” 해향도시문화교섭학, Vol.14, pp.69-96, 2016.
- [23] 조흡, 오승현, “문화적 공론장으로서< 도가니,” 문학과영상, Vol.13, No.4, pp.837-864, 2012.
- [24] 조선희, “동성애영화 어떻게 볼 것인가,” 창작과 비평, Vol.22, No.2, pp.306-315, 1994.
- [25] 홍기원, *미국의 법과 대중문화 속에 나타난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 차별과 평등권 문제* 2011.

저 자 소 개

이 혜 미(Hye-Mi Lee)

정회원



- 2013년 8월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언론학석사)
- 2016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박사과정)

<관심분야> : 빅데이터 분석, 소셜미디어, 소셜네트워크 분석

유 승 호(Seoung-Ho Ryu)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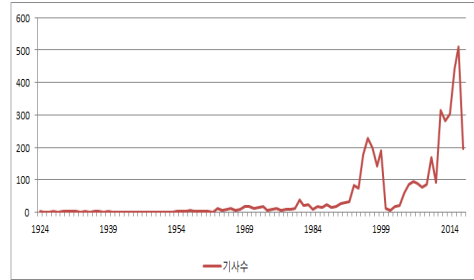
- 1996년 2월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사회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 교수

<관심분야> : 문화산업, 문화정책, 문화사회학

<부 록>

시기별(1920-2017년) 성소수자 관련 보도량

시기	연도	보도 건수
1	1920-1939	32
2	1940-1959	22
3	1960-1979	190
4	1980-1999	1383
5	2000-2017	2854
총계	1920-2017	4481



시기별(1920-2017년) 주요단어 사용빈도

시기별 주요단어	1920-1939 (1시기)		1940-1959 (2시기)		1960-1979 (3시기)		1980-1999 (4시기)		2000-2017 (5시기)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자살	11	영국	4	영국	47	영화	362	인권	587
2	최수	5	도착증	3	섹스	31	사랑	190	차별	353
3	사직	4	매음	3	법안	29	문제	139	축제	350
4	음독	4	범죄	3	합법화	24	에이즈	119	단체	344
5	정사	4	변태	3	호모	17	감독	108	한국	264
6	치녀	4	성욕	3	테모	16	작품	103	권리	236
7	학교	4	소설	3	영화	16	관계	101	사랑	226
8	결혼	3	폭행	3	문제	15	영화제	96	대통령	218
9	대학	3	가정	2	자유	15	결혼	94	혐오	218
10	부인	3	경찰	2	통과	15	문화	82	반대	208
11	사랑	3	계획	2	관계	14	서울	72	지지	193
12	살해	3	관계	2	결혼	13	운동	71	운동	176
13	성욕	3	대객	2	개정	12	인권	71	결혼식	153
14	절명	3	문제	2	교회	12	작가	71	퍼레이드	153
15	하야	3	시체	2	승인	12	소설	68	위장	147